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조선기행문 〈湖南遊歷〉, 〈無佛開城雜話〉

심 원 섭*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湖南遊歷〉 및 〈無佛開城雜話〉에 나타난 아베의 조선관에 나타난 아베의 조선관 |
| II. 〈湖南遊歷〉 및 〈無佛開城雜話〉 여행의 계기와 내용 개략 | 1. ‘호남선’의 의미, 지리 정보에 대한 관심과 식민지 경영자로서의 관점 |
| 1. 〈湖南遊歷〉의 계기와 방문지, 내용 개략 | 2. 아베의 식민지관, 조선인관 |
| 2. 개성 방문의 계기와 방문 여정, 〈無佛開城雜話〉의 내용 개략 | 3. 조선 고적 및 불교문화 애호가로서의 아베 이미지 |
| | IV. 결론 |

국문초록

사이토 마코토의 정책 참모로서 조선지식인들의 회유공작에 앞장섰던 한편, 조선 지식인 사이에 인기도 높았던 아베 미츠이에에는, 사적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과 관련하여, 그 개인의 사상 및 식민지관 등은 베일 속에 가려져 온 것이 한·일 연구사의 실상이었다. 그런 그가 경성

* 인하대학교 BK21동아시아한국학사업단 연구교수

일보 및 매일신보 사장 재임시인 1916년 발표한 두 편의 연작 기행문이 <湖南遊歷> 및 <無佛開城雜話>다. 이 두 기행문에는, 일본의 식민지 경영책의 핵심 사업으로서 개통된 호남선 이데올로기가 이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또 호남선 연선 지역에 대한 경제·산업지리에 대한 아베의 집요한 관심과 더불어, 그가 일찍 경험한 ‘근대’의 눈으로 식민지를 ‘경영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對)조선관의 면에서는, 일본인 대지주 및 정착민에 대한 관심이 강한 반면, 지주-소작 모순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목가적’인 시선으로 조선인과 풍경을 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조선의 영웅들에 경의를 표하는 대목에서도 근세 일본과의 갈등 문제는 소거하고, 멸망한 왕조의 유적 등 ‘홍망성쇠의 허망감’을 강조하는 유형의 정서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가 조선인 전체를 보는 눈은, 이순신이나 이성계, 정몽주, 이목은 등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과거 조선’과, ‘연민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현대 조선’이라는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유행 보존주의’, ‘현지 보존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그의 조선 유적에 대한 애착 속에서는 주관적 의미에서의 조선 애호의 세계와, 제국주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베의 당시 조선과의 인연은, 경성일보 퇴임 이후, 즉 사이트의 참모역을 하던 때에 비한다면 갈등이 적은 ‘목가적 시기’의 산물이었던 느낌이 있다. 식민지 경영자층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조선 소작농 등 피식민층과 관련된 부분은 목가·서정적 시선이 관철되고 있음이 그 근거다. 이것은 조선을 일방적인 계몽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그의 식민지관, 조선 학습량이 절대 부족했던 그의 시기적 상황, 계급적 시각을 조우하기 어려웠던 명치 대정 지식인으로서의 사상적 한계, 그리고 데라우치 통치기라는 당시기의 상대적인 ‘안정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추측된다.

주제어 :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아부충가(阿部充家), 호남유력(湖南遊歷), 무불개성잡화(無佛開城雜話),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경성일보, 매일신보, 이광수, 기행문, 호남선, 여행기

I. 머리말

4대 경성일보 및 3대 매일신보 사장을 지낸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1862-1936)는,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수많은 조선의 작가, 지식인들과 광범위한 교분을 나누면서 그들의 체제 내에서의 회유 작업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또 경성일보 퇴임 이후에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핵심 참모로 활약하는 한편,¹⁾ 조선 지식계로부터는 호감의 대상으로, 일본인 관료들로부터는 의심의 표적이 된 적이 있기도 한 문제적 인물이기도 하다.²⁾

아베가 한국문학사와 지성사에 남긴 깊은 흔적에 비해볼 때, 그 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 특히 개인 연구에 필요한 기본 자료의 수집, 전기적 사실의 집성 등 기초적인 조사가 한일 양국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놀랍다.³⁾ 그가 도쿠토미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는 존재인 점, 또는

1)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아베가 사이토에게 보낸 방대한 양의 서간의 독해작업에 토대를 둔 이 연구 성과는 그 분석 자료의 양과 질 면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2) 이광수, 김윤식 역, 「無佛翁의 追憶」, 『韓國文學』, 1987.6, 333쪽 참조.

3) 그에 대한 연구는, 위의 강동진(1980) 이후, '경성일보' 혹은 도쿠토미 연구의 일환으로서 미량이 발표된 상태로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경성일보』 및 도쿠토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 예는, 정진석, 「언론사 탐구 - 일제 언론침략의 총본산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日報 연구」, 『관훈저널』, 2002년 여름; 『京城日報社誌』京城日報社, 1920.9; 柴崎力榮, 「德富蘇峰と京城日報」, 『日本歴史』1983.10; 森山茂徳, 「現地新聞と總督政治, 『京城日報』について」, 『近代日本と植民地』7卷 文化の中の植民地, 岩波書店, 1993 참조. 도쿠토미 관련 자료집 내 기록으로서는 『德富

그가 개인적인 글을 공표하지 않는 스타일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점도 그 한 원인일 수 있다. 어쨌든 강동진에 의한 정책 건의 서간의 대거 분석(1980) 이후 김윤식(1987)과 최근 심원섭(2009)으로 연구사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⁴⁾ 필자는, 아베가 1916년 『京城日報』와 『每日申報』에, 두 편의 조선 기행문을 발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경성일보 사장 시대의 城日報□개인 사상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베와 교분을 맺고 있던 이광수가 그 해 9월부터 <대구에서>, <동경잡신> 등을, 다음 해 <오도답과여행기>를 같은 지면에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본어로 발표된 원자료의 특성 문제와도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두 기행문의 내용을 요약·소개한 후에, 당시 아베의 사상적 면모들을 대(對)조선관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湖南遊歷〉 및 〈無佛開城雜話〉 여행의 계기와 내용 개괄

아베가 서간문 외의 글은 남기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사정과

蘇峰民友社 關係資料集』三一書房, 1968, 酒田正敏의, 『徳富蘇峰關係文書』近代日本史料叢書, 7-2, 山川出版社, 1985 등이 있다. 국내 연구사 속에 흔히 보이는 이광수와 아베 관련 논의 내용 대부분은 김윤식의 『이광수 연구2』(한길사, 1986) 속의 아베 관련 기록(6-9장)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 4) 김윤식은 아베와 이광수와의 관계를 일부 제시한 『이광수 연구2』(한길사, 1986) 이후,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소상하게 기록된 이광수의〈無佛翁의憶出〉(『京城日報』1939.3.11-3.16)를 발굴 소개하였다. 이후 나온 연구 성과가, 최근의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현대문학의 연구』39집, 2009.10)이다. 이 논문에서는 당시 매일신보 편집국장이었던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가 남긴 『朝鮮生活50年』(靑朝社, 1969.7)에 수록된 아베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아베의 용주사 방문과 친일승려 강대련과의 관계, 조선 불교계 및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에서의 그의 위치, 조선청년들과의 교제 사실, 무불암(無佛庵)의 유래 등, 아베의 경성일보 사장 시대의 전기적 사실 일부를 제시하였다.

도 관련하여, 그 개인 차원의 사상 내지 식민지관 등은 대부분 베일 속에 가려져 온 것이 아베 연구사의 실상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런 그가 경성일보 및 매일신보 사장 재임시 발표한 두 편의 연작 기행문이 <湖南遊歷> 및 <無佛開城雜話>다. 두 글 모두 그의 조선관이나 개인적 취향 등을 살피는 데 있어서 참고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조선 지식인계 속에 존재해 왔던 “조선인에 대한 이해자”로서의 그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1. <湖南遊歷>의 계기와 방문지, 내용 개략

<湖南遊歷>은 총 9회에 걸쳐 연재된 기행문으로서, 『경성일보』(1916년 9.26-10.5)에 먼저 수록되는 한편 『매일신보』(9.27-10.6)에도 하루씩 늦게 번역·연재되었던, 아베 최초의 조선 기행문이다. 각 기사의 제목과 『매일신보』수록 일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湖南遊歷(1)	- 湖南線에 入함	9월 27일
湖南遊歷(2)	- 光州의 1日	9월 28일
湖南遊歷(3)	- 光州 一日(下)	9월 29일
湖南遊歷(4)	- 木浦港 所見	9월 30일
湖南遊歷(5)	- 羅州에서 全州에	10월 1일
湖南遊歷(6)	- 李朝 發祥地	10월 3일
湖南遊歷(7)	- 米의 群山	10월 4일
湖南遊歷(8)	- 湖南線과 運輸	10월 5일
湖南遊歷(9)	- 湖南線의 發展	10월 6일

아베의 이 호남 기행은, 그와 절친한 사이였던 당시 동척 부총재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의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⁵⁾ 동척 부총재로서의 ‘호남

5)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1853-1927):호 대괴(大塊). 도쿠토미 소호, 시부사와 에이이치, 나카노 세이고 등과 국사관(國史館) 창설하였으며, 1898년부터 중의원 의원, 1918년부터 1922년까지 체신부 대신, 1925년 상공부 대신. 1924년 입헌정우회

지방의 도작(稻作) 상황 검분(檢分) 시찰'에 동행하지는 것이 그 권유의 내용이었다. 경성일보 사장으로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아베는, 총독부 기관지의 사장이라는 공인으로서, 또는 조선 문화에 대해 독특한 흥미를 갖고 있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이 여행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베의 여행 코스는, 공무를 띠고 온 노다와 헤어졌다가 다시 합류를 하는 등 일부 코스가 다른 점도 있다. 아베의 호남 여행 전체 코스만 다시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일 발) 대전-광주-목포-나주-전주-군산-강경-경성(21일 도착)

아베 일행은 원래 전주에서 최초로 머문 뒤 남하하는 코스를 선택하였으나 전주 인근 지역의 수해로 인한 교통 장애 문제로 광주와 목포에 갔다가 다시 북상하는 코스를 택한다.⁶⁾ 일정상에 다소의 변경이 있긴 하지만, 이 여행 일정과 방문지 전체는 '호남선'을 둘러싼 당대의 핵심적인 정치 경제적 초점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관련 사항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호남선'이 의미하는 식민지 시대의 정치경제적 맥락과 총독부 거대 기관지의 사장이라는 아베의 입장, 그리고 아베가 조선 문화, 특히 불교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세 가지의 문맥을 고려한 위에서, 이 여행 내용의 전체적인 면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각 요약문의 인용 출처는 매일신보 수록본에 의거한다.⁷⁾

부총재 등을 거쳤다. 입헌정우회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창설한 정당으로서 명치부터 소화 전기까지의 2대 정당 중 하나였다. 시인으로서도 유명하다. 그는 아베의 경성일보 사장 시대에는 동양척식회사 부총재로 재임 중이었다. 그의 동척 시대의 일화와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에서의 그의 위상에 대해서는 심원섭의 위 논문, 2장 참조.

6) 無佛, <湖南遊歷-湖南線에 入함>, 『每日申報』, 1916년 9월 27일

7) 매일신보 번역본은 문체상 독특한 데가 있다. 일본식 한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한 문체를 국한문 혼용체를 구사한 점이 그것이다. 아베 및 이광수와 가까웠던 친풍

(제 1회) 湖南線에 入함

- 여행의 계기 및 코스 설명. ‘호남 연선이 조선의 보고(寶庫)임을 확인’하는 계기였음.
- 호남선 설명 : 충남과 전라도 평야를 관통, 각 평야의 지세(地勢) 설명.
- 대전에서 이리까지 구마모토 리헤이(雄本利平)와 동승, 농장경영 실태에 대해 들음

(제 2회) 光州의 1日

- 16일 밤 광주 入. 미야기 장관 관저 방문. 한 조선인이 ‘진객의 방문 때문에 출현했다’는 표범 2마리를 판매코자 관저를 방문. 아베는 경성의 이왕직 박물관에 보냄이 좋다고 건의.
- 17일 아침, 고적 연구가 스즈키 광주서장과 고려시대 산성⁸⁾ 내의 고석탑을 탐방. 잊혀져 온 탓에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 수리 시엔 전문가에 의뢰해 원형 보존에 힘쓸 것을 강조함.
- 관저 근처의 철불(鐵佛)⁹⁾ 관람.

(제 3회) 光州 一日(下)

- 18일 11시부터 광주농학교 기숙사 방문 : 시설의 편리함과 청결함, 식당 방문. 양잠실 견학.
- 근처 언덕에서 밭을 관망하며 노다(野田)의 즉석 하이쿠 감상. 아베도 한시를 남김.
- 광주시세(市勢) 및 풍광 : 관찰도 소재지는 아닌 신도(新都). 전남의 중앙부. 시가에 정연한 기(氣)가 있음. 무등산의 취색(翠色) 및 광주천의 장류(長流) 찬탄.
- 신임 미야기 장관의 업무 능력 평가.
- 산물 : 쌀과 면, 수산물, 목재. 기후 온화 비옥. 발전을 기대.
- 저녁 7시 목포행 열차 승차 10시 목포 착. 여관 투숙

(天風) 심우섭의 번역으로 추측된다. 판독 불능 부분들은 □로 표기했다.

8) 현존하는 ‘중흥산성(中興山城)’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 당시 광주군 서방면 동계리에 있었다가 1934년 증심사(證心寺)로 이전된 통일신라기 ‘증심사 철조 비로자나불’(보물 131호)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다.

(제 4회) 木浦港 所見

- 목포 항세(港勢) : 유달산록 위치, 거리 정연, 남조선 유수의 항만, 여관 청결, 전면에 다도해 위치, 항만 내 수심이 깊어 대선(大船)의 정박에 적절함. 한시 남김
- 목포의 상풍(商風) : 30년 전 부산에서 이주해 온 후쿠다 유조(福田有造)가 창시자. 부산 출신 상인이 많고 부산식 상풍이 지배적. 사장이 직접 사무를 보는 등 실질근면의 기풍 있으나 우려되는 바도 있음.
- 18일 아침 권업모범지점(勸業模範支場) 참관. 면작 설명 청취. 부청의 하시모토 부윤 방문.
- 오후 세관선으로 항내 순회. '임진난 용장 이순신의 송혼비를 원망(遠望)'
한시 남김 : 亂松海角護身碑 曆數循環跡復寄 畢竟人人爲其主 不傷呼僞丈夫兒
- 먼 공장 견학
- 6시 20분 목포행. 8시 30분 나주 착, 여관 침실 벽에 노다(野田)가 써 붙여놓은 하이쿠 작품을 봄.

(제 5회) 羅州에서 全州에

- 나주 시세와 산업 : 조선조 전남의 수부(首府)이나 소규모임. 성곽 훼손. 과실과 토란 산지.
- 나주 고적 : 석등 관람
- 동문 밖 석등 및 찰간¹⁰⁾관람 - 찰간의 외양을 상세히 설명. 보존 상태 양호함.
- 오전 8시 20분 전주행. 별관 풍경 : 황금 별관, “處處에 白衣의 鮮農을 見함은 一幅의 畵터라”
- 김제 거쳐 12시 30분 이리 착. 승용차로 전주행.
- 호소카와(細川) 후작가(家)의 대장촌(大場村), 이와사키가(岩崎家)의 동산(東山)농장 원망.
- 국도변 아카시아를 보며 : “鮮인에게도 愛樹의 사상이 싹튼 듯”, 내 지인 농가와 상점 목도.
- 오후 2시 전주 도착. 도청 이장관 방문. 시내 시찰

10) 현존하는, 나주 동문 소재 '석당간'으로 추정된다.

(제 6회) 李朝 發祥地

- 전주 경기전(慶基殿) 관람 - 이성계 화상 배관.
- 박영근이 설립한 사립잡업전습소(한국 황제 하사금으로 건립) 참관 : 전주 여성의 수공 능력이 좋으며, 동아연초, 전주공장 등도 경성보다 성적이 좋다는 설명 들음.
- 경기전 내 출토 고종(古鐘) 관람.
- 대밭을 지나 별장 도착. 죽림을 소요하며 “내지에 귀환한 듯한 엄을 느낌
- 오목대(梧木臺)에 올라 한시 지음.
- 남문 견학 : “조선 제일의 高門”. 누상의 범종 관람.
- 전주천을 건너 다가공원(多佳公園) 행. 조선인의 등에 업혀 다리를 건넌. 조선인 “아이고” 연발.
- 다가정(多佳亭) 및 산 정상의 대신궁(大神宮) 참배. 시내 조망.
- 이 장관의 업무 능력 찬
- 시세, 문화 : 정비된 시가에 고적과 거목과 꽃이 풍부한 화도(花都). 일본인 수 3000명 초과

(제 7회) 米의 群山

- 5시 군산 도착.
- 品川정미소 참관 : 정미기계를 운전기와 비교. 기타 거대 정미소들에 흥미 표시.
- 항내 조망 : 금강 하류라는 사실을 알고 놀람. 미곡의 이출(移出) 장관을 상상.
- 남방산 공원 도상의 화초와 저녁 풍취에 감흥, 경성일보사가 기증한 요시노(吉野) 벚나무의 성장세를 보고 벚나무 명소가 되기를 기대. 신축 대신궁 참배. 황혼의 군산 시내 조망
- 시가 풍경 : 웅대한 건물은 미곡검사장, 미곡상무소, 정미소 등 모두 쌀 관련 건물. 군산의 상징.
- 항만 수축 공사 예산 문제 : 군산 시민의 소망이나 총독부 재정 관계상 조속히는 착공 곤란
- 인입선 철도 건설 문제 : 철도 부설 순서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군산의 미래 - 전북, 전남, 충남, 경기의 산미를 토해내는 조선 제1

일의 항입.

- 상풍(商風) : 목포가 부산 상풍임에 비해, 군산 상인은 인천 상풍을 받아 패기가 있다는 설 소개. 한시 남김

(제 8회) 湖南線과 運輸

- 21일 오전 7시 출발 강경 행
- 노다의 호남선 철도 정책 소개 : 선편과 철도로 분산되어 있는 수송 수단을 통일시키는 방안
- 삼남(三南)의 산미(産米)지역을 관통하는 호남선 영업이 기대와 달리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음. 철도당국의 곡류 운반 정책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¹¹⁾

(제 9회) 湖南線의 發展

- 21일 아침 군산 출발, 9시 강경 도착.
- 강경 시세 : 조선 3대장인 강경장(場) 구경. 옛날에 비해 규모가 축소됐음을 확인. 번창기를 회상하며 소감을 한시로 남김
- 農工 銀行 조합, 우체국 등 주요 기관 방문 및 市勢 시찰
- 강경산에 올라 시가를 부감. 대신궁, 포영대 원망(遠望). 고석탑 관람. 주변을 사찰터로 추정.
- 10시 40분 발차로 출발 논산 도착 : 차중에서 주조회사 사장 中村 再造 만남
- 대전에서 경부선 급행으로 환승, 오후 9시에 경성 도착
- 裡里 시세 : 교통 요충지, 내지인 수가 합방시 30여 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 전주 평야의 중심지.
- 전남 영산포 : 평야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 동척 출장소 소재지.

2. 개성 방문의 계기와 방문 여정, <無佛開城雜話>의 내용 개략

1916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경성일보』에 게재된 이 기행문은, 개성의 자산가 김기영(金基永)의 초대를 받아 아베와 당시 자작 조중응이 1박 2일 여정으로 개성을 방문했던 체험을 쓴 글이다. 김기영

11) 春園生의 <東京雜信, 工手學校(1)>이 같은 면 3단에 실려 있다.

은 경기도 조선인을 대표하여 도쿄에 있는 친구 조선 총독을 인사차 방문하고 귀국한 직후로서, 자신의 귀국 보고회에 두 사람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조중응이 초대를 받은 이유는, 그가 합방 당시부터 총독부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조선인의 일본 시찰단 조직을 적극 옹호하는 활동을 펴고 있던 데에 있었을 것이다.¹²⁾ 두 사람은 보고회에 참석하여 김기영의 보고를 듣고, 조중응이 1시간 반에 걸쳐 답연설을 행한다. 이후는 아베의 개인 취향이기도 했던 바, 개성의 고적지를 탐방하는 과정을 거친다. 개성 방문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성보통학교 연설회 참석 - 부산동(扶山洞) 산장에서 열린 위로회 참석 - 김기영 댁에서 1박. - 충양(崇陽)서원 방문 - 만월대 터 및 선죽교 방문 - 전매과(專賣課) 개성 출장소 방문 - 귀경

이하 개성 기행문의 내용을 요약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金氏의 報告會

- 김씨의 연설 내용 : 도쿄에서 친구 총독을 만나 유시를 받음, 데라우치의 편지를 낭독함.
- 조중응 연설 내용 : 데라우치 전 총독의 치적 상술. “각 방면에서 세계와 일본에 뒤떨어져 있는 조선은 내지인과 보조를 맞추어 분발 노력하자, 조선을 학교로, 총독을 교장으로, 정무총감을 교감으로, 각 부국장들을 교사로 정무를 통일 진보를 꾀하고 학문을 수득

12) 1910년대는 경성일보사, 조선총독부, 동척 등의 지원 아래 ‘귀족시찰단’ ‘조선진신내지시찰단’ ‘동척시찰단’ ‘규슈시찰단’ 등의 시찰단이 조직되어 일본을 방문하는 행사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시찰단의 일본 파견과 관련하여 조중응은 합방 직후에 시행된 ‘귀족시찰단’의 조직에 열성적이었으며, 이후에도 각 시찰단의 일본 방문에 ‘적극적이었으며 지도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중응의 귀족시찰단 건은, 박양신,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 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37집, 2005.2, 83쪽 참조. 이후 활약 건은 조성운,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수유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33쪽.

하자”

- 부산동(扶山洞) 산장에서 김기영 위로회 광경 소감 : 송도 고래의 명소로서 선경(仙境)이나 기암 괴석에 무명의 인명들이 다수 조각되어 있는 등 훼손 상태를 개탄.

김기영 댁에서 1박

김기영 일가 소개 :

가형 金基煥 - 가평군수, 사제 - 농은 근무, 종제 金重世 - 독일에서 종교철학 연구

종제 金基善 - 보통문관시험 합격 후 동경에서 서기(조선인 최초 문관)로 근무. 총독부 근무 중

2) 松都名所 巡

- 송양(崇陽)서원 관람 : 만월대 터 방문. 기와 파편들. 서원을 관리하는 노유(老儒)를 만남

한시 興亡千年兩悠悠 然倚古丘 猶有群童慕遺德 □□聲裏護□樓

- 善竹橋로 向하던 중 밭 가운데에서 목은 이색의 石碑를 발견.

한시 殘礎敗□百年空 一片苔碑荒□中 憶得兩雄來往跡 鄭公衆隔小丘通

- 선죽교 : [國破山河在]의 淒然 寂寞을 느낌.

한시 善竹橋 艇身只常致丹誠 一木雖支大□□ 碧血如新表高節 冷煙枯柳古橋橫

- 金基炯 댁 소개 : 명치대학 출신으로서 내지에서도 통하고 있는 인물. 개성 굴지의 자산가. 인삼 재배 제1인자. 父는 老儒者.

- 王陵 및 專賣課 開城 出張所 방문.

- 개성의 경제상 : 인삼 작황 호황으로 산액 300만원. 100만은 송도에 떨어지고 30만은 순익.

- 개성인의 상업 진출 유래 : 조선조 탄압으로 관리 진출 대신 역행 근검 정신으로 상업계에 진출, 능력 발휘. 속담 소개 “개성 사람 지나간 곳엔 풀도 안 난다”

- 송방의 전국 상권 장악 상황 소개.

- 개성의 통용어 “不願爲官願爲商” - 개성인의 특성 상징

한시 : 不希爲吏去爲商 一語流風標榜長 兵馬堂堂半千歲 遂輸八道爲松房

Ⅲ. <湖南遊歷> 및 <無佛開城雜話>에 나타난 아베의 조선관

1. '호남선'의 의미, 지리 정보에 대한 관심과 '식민지 경영자'로서의 관점

대전을 출발한 아베가 방문했던 지역은 광주, 목포, 나주, 전주, 군산, 강경이다. 이 지역들은, 합방 직후부터 서둘러 공사가 진척되어 1914년 1월 개통된 호남선이 정차·통과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일부 잠업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미곡의 생산 및 집산지, 혹은 수출지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기반의 확보와 자본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자 수송망, 지역 연결망으로서의 관선 철도 건설사업이 당시 총독부 당국의 우선적인 식민지 경영방침이었으며 투자의 제1순위 대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호남 지역이 일본 수출을 위한 미곡의 생산 및 그것의 효율적 운송을 위한 핵심적인 자본 투여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¹³⁾ 이 여행은 식민지 경영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맥락이 원경 속에 자리하고 있는 여행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베 역시도 경성일보 부임 이후, 조선 철도의 역사와 사회경제적 의미, 세부 운영 상황 등의 소개에 관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¹⁴⁾, 이 여행은 아베 개인에게

13) 관선 철도 관련 문제는 전성현,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운동(1910-1923)」, 『石堂論叢』40집, 2008, 223쪽. 일제의 1910년대 간접자본 투자 실태에 관한 문제는 김재호, 「식민지기의 재정지출과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경제사학』 46호, 2009, 85쪽.

14) 1915년, 1916년경의 경성일보에는 각 지역 여행기 관련 기사가 거의 매호 실리는 것이 상례였다. 특히 아베의 부임 1년 후인 1915년 10월에는 물산공진회, 가정박람회 개최 시기와도 맞물려 조선 철도 관련 특집이 대대적으로 게재된 바 있다. 예를 들면, <鮮鐵의過去現在未來>, <朝鮮鐵道の回顧>, <朝鮮鐵道の沿革>, <千里踏破雜感>, <沿線各驛の主要物産> 이상 10월 3일자 『경성일보』 참조.

있어서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의 최대 산출지였던 남조선의 핵심지역을 현지 학습한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 여행을 통해 “호남 연선이 조선의 보고(寶庫)임을 확인”했다는 그의 기술은,¹⁵⁾ 그의 이 기행의 이면에 원경(遠景)으로 자리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아베의 여행 동기가 일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예의 하나라 할 것이다.

이 두 기행문 속에서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테마의 하나가, 각 지역의 산업과 경제, 교통, 문화 등에 관한 요약적 소개라는 점은, 위의 점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된다. 그것이 도세(道勢), 시세(市勢), 지세(地勢), 항세(港勢), 상풍(商風) 등등의 용어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아베는 이 기행문의 발표 형식과 관련하여, 이 지리정보 관련 기술을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 질 면에서 보자면, 그가 제시한 지리정보들은 당시 양대 신문의 지면을 채우고 있었던 지역 정보 기사들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아베가, 자신이 탁상에서 공부한 조선 정보를 현지에서 확인해 본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관찰 내용 속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實業家로는 福田有造氏が 木浦의 初創者라는데 氏는 三十有餘年 전 釜山으로부터 移來호얏고 기타 木浦의 商人의 多數는 釜山을 接足地로 作호야 移來호는 것이라 其商風도 釜山의 系統을 引호야 質實勤勉호다는 事를 聞호얏스니 假令 巨商의 主人이라도 반드시 親히 店頭에 在호야 事務를 執호는 事이라 質實이라 흠은 毋論 堅確호는 것을 意味호는 것이 나 一轉호면 退嬰陷入호는 憂가 不無할지니 木浦인사는 此邊에 警醒호는 바이 無호면 不可호다 杞憂하는 人도 有호더라¹⁶⁾

群山の 商人은 木浦商人의 多數가 釜山의 氣風을 帶호에 反호야 一種의 霸氣에 富호는 仁川の 商風을 受호얏다 호는 言도 聞호얏노라¹⁷⁾

15) <湖南遊歷(1) - 湖南線에 入함>, 『每日申報』, 9월 27일

16) <湖南遊歷(4) - 木浦港 所見>, 『每日申報』, 1916년 9월 30일

<목포항 소견>에서, 아베는, 사장이 직접 점포에 나와 사무를 챙기는, ‘실질근면’한 일본식 상풍을 소개하면서도 그 그릇의 작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군산의 상풍을 소개하면서도 “일종의 패기에 실(實)한 인천의 상풍”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다. 이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다. 식민지 관리자의 주역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아베가 식민지의 상업 요충지를 둘러보면서, 일본 상풍에 물들지 않은 조선식 상풍에 일정한 호의적 감정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대목도 눈여겨 볼 만하다.

埠頭に 出^하야 港內를 一見^하얏는디 子는 群山港은 海灣으로만 知^하얏더니 錦江의 下流라 呑을 聞^하고 □驚^하얏스며¹⁸⁾

木浦의 市街는 峨峨^하 유달산록을 속^하야 形成^하고 街가 整然^하야 可謂 南鮮의 有數^하한 港灣을 作^하얏스며 旅館 등도 淨潔^하야 寢食에 가격^하며 前에는 世界에 有數^하한 多島海를 公재^하고 其港內는 水가 深^하야 大船의 碇泊에 適^하더라¹⁹⁾

군산항을 쌀 수출 항만으로만 보고 있다가 금강의 하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는 이 대목은, 군산이 곡창 지대의 하류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체감한 데서 온 반응이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호남과 충청권 미곡의 집산지, 혹은 수출지역으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항구임을 발견한, 식민지 경영자의 눈이다.

목포항의 ‘수심이 깊어 대선의 정박에 적절’하다는 지적 역시도 관심을 요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수심이 얕은 중세적 방식의 항만에 안주하고 있다가 구로부네(黑船) 앞에 굴욕적인 개국을 해야 했던 근대 일본인의 뼈저린 체험이 반영되어 있는 발언일 것이다. 대형 선박의 출입이 가

17) <湖南遊歷(7) - 米의 群山>, 『每日申報』, 1916년 10월 4일.

18) <湖南遊歷 7 - 米의 群山>, 『매일신보』, 10월 4일.

19) <湖南遊歷 4 - 木浦港 所見>, 『매일신보』 9월 30일.

능한, 수심이 깊은 항만의 소유 여부는, 해당 국가가 자력적으로 근대국민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집단인가 아니면 식민지 경영을 기다리는 봉건제하의 집단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상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²⁰⁾ 아베의 이 눈은 열강의 침략 앞에서 근대의 충격과 그 굴욕을 일찍 경험한 자, 그리고 서구에 필적하는 근대국민국가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단에서 건너와 그 학습내용을 갖고 조선을 바라보는 지배 엘리트 특유의 실물적 감각이 드러나 있는 대목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베의 상식적인 듯한 지역 정보 관련 발언 속에는, 실은 지배 대상으로서의 조선의 전체적 지형을 파악하려는 감각 -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뚜렷한 자각을 갖기에는 시기상조였던 - 그 지배-피지배 역학의 감각이 변칙적이고 있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지리 정보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가 이러한 방면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시대적 관습의 힘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식민지 각 지역의 경제 및 역사, 문화지리 관련 정보를 중요 담론으로 삼는 문화는, 실은 1910년대 조선 문화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담론 장르였기 때문이다.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의 1면과 2면에 지속적으로 게재되던, 지역 정보 소개에 치중한 각종 기사와 여행기들이 그것을 입증한다.²¹⁾

20) 松本健一, 「視點論点, '海岸線の歴史」, <http://www.nhk.or.jp/kaisetsu-blog/400/19885.html>, 2009.5.13, 2009년 10월 26일 접속.

21) 1910년대 중반 및 중후반의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2면은 국제정세 및 중요 인사, 정책 공지 사항이 주로 게재되는 난이었으며, 그 하단은 “○○에서”라는 제목으로 된 각 지역의 상세한 경제지리 소개란으로 배당, 운영되고 있었다. 이광수의 기행문의 제목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구에서> 등의 ‘○○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기행문들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관습의 하나였다. 반면, 이 신문들의 제1면에는 총독부의 주요 시책을 담은 사설이나, 유명 관료나 정치가들의 정치 논설, 조선의 역사나 고적 등에 관한 학자들의 연재 논설, 그리고 조선 각 지역 여행기 연재물들이 수록되고 있었다. 좀더 넓은 범위에 걸친 통계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긴 하나,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제1면에 연재 여행기가 적극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915년 중반경부터가 아닌가 판

당대를 이러한 지리 정보 담론이 지배하고 있었던 현상 뒤에는 물론 거대한 시대적 보편성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매스컴을 통해 그것을 대중에게 소개, 선전하는 작업은,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1의적인 문화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실은 식민지 경영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과제이기도 했다. 식민지 지배 하에서 그 피지배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근대국민국가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었던 조선은 물론, 조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일본 국내에서의 근대국민국가화라는 작업을 수행해 가던 제국 국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과제였기 때문이다.²²⁾

이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의 지리 정보 소개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식민지 경영자’ 내지 그 입장에 입각한 ‘전문 언론인’으로서의 관점이다. 그는 산업지리적인 측면에서 각 지역의 물자 운반의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군산의 인입선 건설 문제 및 항만 시설의 수축 문제,²³⁾ 호남지역의 운송 수단 통일 및 철도 운임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²⁴⁾ 이 문제의식은 절정에 달해 있다. 광주, 목포, 군산, 개성 각 지역의 상풍(商風)에 대한 분석도 그가 이 지역들의 경제 사정에 대해 상당한 연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10년, 함방과 더불어 서둘러 공사가 진행되어 ‘최근’(1914년) 개통된 호남선, 산미의 일본 수출이 최대 목적인 그 호남선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문제

단된다.

22) ‘근대국민국가의 완성’이라는 대명제는, 일본의 경우는 외적으로는 제국주의 건설, 내적으로는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명제를 동시진행적으로 수행해가며, 조선의 경우에는 제국주의에 의한 피지배 체험을 통해서 학습해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山室信一,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西洋の學知と近代」(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회 콜로키움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과 서학” 강연 원고, 2009. 2.13) 참조.

23) <湖南遊歷 7 - 米의 群山>, 『毎日申報』, 10월 4일 참조.

24) <湖南遊歷 8 - 湖南線과 運輸>, 『毎日申報』, 10월 5일 참조.

의식이 노출되어 있는 점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가 각 지역에 도착한 후 방문하는 공간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 식민지 경영상의 최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산업 시설들, 은행, 우체국, 그리고 농학교, 잠업학교 등 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이다. 이러한 ‘근대적 기관’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관찰이 중요 관심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충청, 전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일본인 지주들의 거대농장의 경영 실태에 대한 관심 역시도, 이 지역들에 정착한 일본인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원경(遠景)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기행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관점 중의 하나는, 서구적 근대와 자본주의적 경영방법, 이것을 몸에 익혀 식민지 속에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있는 전문 경영자의 관점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 아베의 식민지관, 조선인관

식민지 경영자로서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는 이 기행문들 속에서 한편으로 주목되는 점은, 그의 관점 속에 식민지하의 조선인, 즉 피지배자층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후일 그가 조선 지식계에서 ‘조선에 대한 동정자’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던 점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이 가는 점이다.

<호남유력>속에 등장하는 조선인 관련 에피소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전주에서 목도한 조선인 소녀 학생들은, 잡업이나 연초 제조 방면의 기능이 경성보다 뛰어나며 그런 ‘기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식민지의 ‘성실하고 암전한 근로자 혹은 학생’들로 제시된다.²⁵⁾ 또 ‘진객(珍客)’의 전주 방문에 맞춰 출현한 표범을 팔러 온 조선 상인을 보는 그의 눈은, 자신을 환영하러 온 지역민에 대한 호감으로 가득 차 있다.²⁶⁾

25) <湖南遊歷 6 - 李朝發祥地>, 『每日申報』, 10월 3일

26) <湖南遊歷 2 - 光州의 一日>, 『每日申報』, 9월 28일

거구의 자신을 업고 물을 건너는 조선인이 연발하는 “아이고”를 신기하게 듣는 대목은²⁷⁾ 전형적인 단기 여행자로서의 감각이다.

이런 식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절정은 그가 나주-전주 가도에 있는 호소카와가와 이와사키가의 대농장 근처 “황금 들판”에서 일하는 조선인 농부들을 보고 “處處에 白衣의 鮮農을 見함은 一幅의 畵더라”라 영탄한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²⁸⁾ 그는 이 전북 지역이 전국 최대의 “일본인 거대지주 집중 지역”이라는 사실은 알았던 것 같으나,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인 지주-소작 관계의 모순에 대해서는 일말의 암시조차 남기지 않았다.²⁹⁾ 대신 그가 남긴 것은 흰 옷의 농부들이 점점이 흩어져 일하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뿐이다. 한시를 즐기는 명치시대 인간인 그 자신으로서는 이것은 솔직한 감흥이자 그다운 정서적 반응의 표현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그가 이 기행문의 전편에서 노출하고 있는, 식민지 경영인으로서의 면모와 비교해 보면, 그가 조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하나가 이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의 시선 속에는 ‘피식민지’의 ‘소작’농에 대한 인식이 없다. 즉 사용자인 부르주아의 입장, 거기에 조선의 농장을 경영하러 온 일본인 지주 집단과 정착민들의 ‘선전(善戰)’을 지켜보는 감독자의 눈밖에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인 소작농들은 총독정치가 가져다 준 ‘근대적’ 농경 체제의 ‘혜택’ 아래 양순하게 적응하고 있는 목가적인 농경민으로서 비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 서정적 정취 속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인 갈등상에 대한

27) 위 <李朝發祥地>참조

28) <湖南遊歷 5 - 羅州에서 全州에>, 『每日申報』, 10월 1일

29) 전북지역은 일본인 대지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이자 “첨예한 지주 소작 관계가 기본대향을 이루고 이를 기본축으로 하여 소작농민의 빈궁화가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는” 지역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소순열, 「1920-3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15권 2호, 6쪽.

인식이 없는 천진하고 평화로운 서정적 감정이다. 물론 1919년 조선민족의 민족해방운동 역량을 목도한 뒤 사이트의 정책 참모로 일할 때의 그의 입장은 이 시기와 확연한 선을 긋게 되지만, 이 1910년대 중후반에 한한 한은, 그가 식민지의 조선인 서민들을 보는 시각 속에는 이렇게 이 문화(異文化) 속에서 맛보는 신선감을 거리낌없이 표현하는 여행자적, 혹은 ‘목가적’ 시각이라 할 만한 요소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본다.

또 광주 교외 고석탑의 원형 보존에 오히려 조선인의 무관심이 한몫을 했다는 대목³⁰⁾, 개성 부산동(扶山洞) 산장에서 기암괴석에 새겨진 인명들을 보고 개탄하는 대목,³¹⁾ 이리-전주간 국도 구간의 아카시아 길을 보며, “통행하는 조선인들에게도 애수(愛樹) 사상이 싹튼 듯”하다고 한 대목 등에서는,³²⁾ 그가 조선인을 계몽과 교화의 대상인 ‘비문화인’으로 보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의 절정이라 할 만한 것이, 조중응의 연설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進步하는 內地人과 步調를 맞추는 事는 困難하다, 故로 朝鮮을 學
校로 보고 總督을 校長으로, 政務總監을 副校長으로 仰고 各 部局長
官을 教師로 呼야 法令制規 其他 各般 政務의 統一進歩를 圖하고, 予 朝
鮮人은 非常히 勉強하고 活學文을 收得을 呼야 마땅호노라³³⁾

다소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선인을 전적인 계몽의 대상, 혹은 근대적 계몽의 수혜자로 보는 관점은, 당시 여행기의 최대 생산자인 이광수의 문장을 포함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 속에도 일부 전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베가 존중감을 표시한 조선인들도 물론 그의 여행기들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 조선조의 이순신과 이성계³⁴⁾, 고려조의 정몽주, 이목은, 그리

30) 위 <光州의 一日>참조

31) <無佛開城雜話>, 『京城日報』, 1916년 11월 25일.

32) 위 <羅州에서 全州에>참조

33) <無佛開城雜話>, 『京城日報』, 1916년 11월 25일.

고 개성의 김기영 일가와³⁵⁾ 노유(老儒)들이 그들이다. 아베로부터 존중의 대상이 된 이들은, 과거사 속의 영웅들과 식민 통치기의 인물로 나뉘진다. 우선 과거 인물들에 대한 묘사 중 이순신과 이성계 관련 대목에서는, 그들의 ‘영웅성’은 인정하되, 일본과의 전쟁 등 대립 부분에 대한 언급은 소거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주의 경기전(慶基殿) 근방에 위치한 오목대(梧木臺) 관람 내용이다.

大久保 第一部長과 立花 技士에 伴호야 全州 南門內의 慶基殿에 行호야
 았는디 慶基殿은 朱塗의 樓門과 宮殿式의 建物이라 正殿에 安置호 李朝
 의 始祖字成桂氏의 畫像을 拜觀호니 果然 五百年의 基를 固호 傑人인고
 로 一種의 骨相風格을 具備하얏고 尙向殿 內에도 其時代의 宮殿이 그디
 로 飾호야 嚴然히 保存호야는디 如斯히 永久히 保存된 事는 史料研究上
 至極히 便利호 事라 호노라 予는 記念호기 爲호야 門內에서 古瓦의 破
 片을 拾來호야는디 恐컨디 舊慶基殿의 尾인듯 호디라. [중략] 茲로브터
 梧木臺에 上호니 臺의 傍에 李氏 祖先의 舊樓라 稱호는 祠堂이 有호디
 全州의 市街는 脚下에 連호야 一望十里의 平野는 遠開호고 黃雲 漲溢호
 眺望은 實로 壯觀이 □群峰連□호야 遼히 夫餘를 望호야 突兀히 百濟의
 城址는 頭上에 □하얏고 鄭夢周의 [青山隱□夫餘國, 黃葉□紛日□城]이
 라 稱호 二句가 眞景을 □하얏더라 吾輩도 亦 一詩를 作호야스니 □□
 山河萬□生, 千年興廢復□情, □青何處夫餘國, 滿目秋風百濟國³⁶⁾ (□은
 관독불능 부분, 강조 : 인용자)

오목대(梧木臺)는 이성계가 남원에서 왜구전에서 승리한 후 상경하
 다가 축하연을 벌였던 장소다. 아베가 ‘이씨 조선의 구루(舊樓)’라고 보
 았던 곳은, 전주가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의 거주지였다는 사실을 기념하
 여 고종이 내린 친필을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는 비각이다. 아베는, 경기
 전(慶基殿)에서는 이성계에 존경의 염을 표했으나, 일본군에의 승리를

34) 각각 <湖南遊歷> 4회와 6회 기사 참조.

35) 이상은 <無佛開城雜話> 상,하 기사 참조

36) <湖南遊歷 6, 李朝發祥地>참조.

기념한 자리였던 오목대 및 고종의 친필을 보관한 비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이 신속히 옮겨간 곳은, 원경으로 보이는 부여의 존재다. 멸망한 백제의 성지(城址), 멸망한 고대 일본의 동맹국에 대한 낭만적 비애감을 그는 표백하였다.

수행원으로부터 건립 경위를 듣지 않았을 리 없는 아베가 이런 반응을 보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선사 편수회 사업이나 조선고적 사업 등, 정체사관, 타율사관을 조선에 정착시키기 위해 진력했던 데라우치 시대의 ‘힘’이 그 기관지의 사장 아베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일까. 혹은 아베 개인의 조선사관 자체가 그러했던 것일까.

어쨌든 조선조와 고려조의 영웅들에 대한 아베의 반응은, 그들에게서 일본과의 갈등상은 소거하고 ‘영웅성 자체’와 ‘역사의 흥망에 대한 무상감’이라는 정서를 하나의 세트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도쿠토미가 일찍이 조선조의 당쟁정치의 폐단을 거론하기 위해 인용한 바 있는 정몽주의 경우도³⁷⁾ 아베는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식의 정서로 보고 있다. 이에 감흥이 일 때마다 즉흥 한시를 남기는 면모까지 더불어 볼 때, 그에게서는 역시 명치기의 지사적 풍모에 문인 기질을 더한 인격의 소유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도쿠토미 역시도 공유하고 있었던 이러한 정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의 고대 세계에 친근감을 표명했던 일본 지식인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태도의 일부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일가의 성원 대부분이 출세를 하여 식민지공간 속에서 활약하고 있던 개성의 김기영 일가에 대한 기술 부분 속에서는, 이들이 모두 일본의 조선 통치 이념에 잘 계몽되고 적응하여, ‘문명화’하고 있는 인물군, 즉 총독부 선정(善政)의 성과물로서 포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존중의 대상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조선인들의 이미지 속에는 공통점이 있다. ‘흥망성쇠의 역사 과정’ 속에 사라져간 과거의 역사 속의

37) 정일성, 『일본 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2005.8, 41쪽.

영웅이거나, 혹은 식민지 시대 속에서 새로 순응, 성장해가고 있는 인물들 - 식민지 통치를 위해 사용되는 중간 실무자 계급 속에 편입하고 있는 중인 현대인 - 이거나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행기들 속에서 아베가 그린 조선인 이미지는, '과거 역사 속의 영웅', '순응 혹은 성장 중인 현대의 인물'들, '연민과 시혜적 교육 대상으로서의 양순한 서민', 이렇게 세 부류로 정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단순하게 보자면, '존중할 만한 과거'와 '연민의 대상으로서의 현재' 이러한 구도로 정리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당시 59세였던 경성일보 사장 아베가 본 '현재'의 조선인 이미지 속에는, 후일 사이토 총독 시대의 정책의뢰문 속에 보이는 갈등 혹은 '경계'의 요소가 없는 것이다. 그의 문인 기질 탓과도 관련하여, 그의 기행문 속에 서정적 분위기가 자주 노출되고 있는 점도 이런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3. 조선 고적 및 불교문화 애호가로서의 아베 이미지

아베의 여행기 속에서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 내용이 조선의 고적이나 유물, 사찰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원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와 함께 일본의 선불교를 서구에 알린, 대정기의 선승이자 가마쿠라의 원각사(圓覺寺) 관장 샤스소엔(釋宗演) 문하에서 도쿠토미 등과 함께 참선 수행을 해온 경력의 소유자다. 경성일보 재임시 대에는 조선의 명찰을 순례하는 습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1915년 초에 들른 수원의 용주사에서는 수행승들에게 즉석 법문을 펼친 적도 있었다. 또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에서도 참선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임제종의 조선 포교 책임자인 고토 즈이간(後藤瑞巖)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달마도에 대한 그의 광적인 수집벽을 둘러싼 일화 역시도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³⁸⁾

38) 이상은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39집, 2009.10, 2장과 3장 참조.

아베는 첫 기착지인 광주에서의 첫날 전부를 석탑과 불상 탐사로 보내기도 했지만, 이러한 조선 고적 및 불교 문화에 대한 기술 내용은 이 여행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베는 고적 관련 체험을 기술할 때 상당한 원고량을 할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묘사 역시도 상세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산업경제 관련 언급 내용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들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성일보 사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여행기와 조선 고문화 애호가로서의 개인 여행기,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는 데에 아베의 기행문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의 고적 탐사 관련 내용 부분에서 특히 주목되는 논리는 원형 보존과 현장 보존주의다.

“一見함에도 其塔이 如何히 原形디로 保存호야 各地에 在호 遺物과 如히 邊緣이 缺호거나 塔의 笠石이 遺失되는 등 此의 缺點이 無호고 全存호은 도리혀 今日까지 等 棄忘却호은 恩澤이라 稱호겠더라. 今後는 으 勿조록 當局者의 保存方法이 完全호야 此等 古物에 □□가 生치 안이도록 願호는 바이라 此 其塔의 笠石上에 鐵棒이 箱在호았스니 此는 追想컨디 塔心의 裝飾호 殘骸인듯호며 但 土臺石의 中央에 稍凹處가 有호은 永久의 保存上 一遺憾이라 善히 其道에 通호은 人과 相議後 修理호야 永久히 古蹟 保存의 實을 完全히 호도록 希望호노라 修理호기 爲호야 도로혀 塔의 形을 損호는 등 事가 有호면 此는 所謂 角을 矯호다가 牛를 殺호는 等 類인 고로 一言의 婆心을 附加호노라

其歸途에 長官官邸 後面의 稻田□으로 朝露를 踏호며 鐵佛을 見호라 往호았는디 是亦 關野 博士는 千年以上을 經호은 古物이라 鑑定호았다는 디 此 鐵佛에 祈願호면 妊娠의 效가 顯著호다 호야 每月 某日에는 隨專 參拜호는 善男善女가 不堪호다더라” (□□은 판독 불능 부분, 강조 :인용자)³⁹⁾

39) <湖南遊歷 2 - 光州의 一日>, 『每日申報』, 9월 28일

나카무라 겐타로의 기록 속에서도, 조선의 문인화 등 고예술에 대한 관심과 그 수집열이 경성의 일본인 사교계를 풍미한 문화적 관습의 하나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⁴⁰⁾ 이 점은 조선에 올 때마다 한적과 골동품을 대규모로 수집했던 도쿠토미 소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⁴¹⁾ 달마 수집벽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도 그 편린이 보이지만, 아베는 조선의 고적, 특히 불교 유적에 대해 상당한 식견 내지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조선의 불교 유적을 대하면서 위치럼 유적의 원형 보존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문을 하고 있다.

‘원형 보존주의’, ‘유적의 현지 보존주의’라 요약될 만한 아베의 유적관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인 것이었다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아베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에서는 이 점이 그의 조선 문화에 대한 존중감 내지 애정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런 아베의 특징이, 조선인 지식계에 퍼져 있었던 그의 ‘조선 애호가’로서의 이미지에 기여하고 있었던 데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베의 이러한 관점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유적의 현지보존주의’는 아베 개인만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10년대 총독부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로서 ‘문화통치’의 치적으로 자평(自評)되고 있는 사업, 즉 1915년부터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1974-1946)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었던 ‘조선고적조사사업’이 표방하는 핵심 방법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⁴²⁾ 매일신보나 경성일보에서 이

40) 심원섭, 앞의 논문 2장 및 3장 참조.

41) 정일성, 앞의 책, 100-103쪽 참조.

42) 일본에 의한 조선 고적조사 및 보존 작업은, 통감부 시대인 1909년부터 시작되어 1916년 조사 결과를 4권으로 도판화한 『조선고적도보』의 출간으로 일단락을 지은 이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아간다. 한편 이 사업을 주도한 구로이타의 유적 조사 및 보존방법론을 대표하는 ‘현지 보존주의’는 일본 국내보다도 앞서 조선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총독부가 문화통치의 치적으로서 자랑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성시의 견해에 따르면, 식민지인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수호하

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취급한 적이 있는지, 또 아베가 이것과 직접 접촉한 바 있는지의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터이나, 어쨌든 아베의 조선 고적관이,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던 당시 문화 정책의 핵심논리와 유사성을 갖고 있었던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 1934, 1935년경의 아베 일화 하나를 추가로 인용한다.

“지금 일본인 중에 최소한 천팔백만 명은 고구려인이나 백제인이나 신라인의 자손이니까.”

“교토 거리도 옛날 신라 도시와 건물에서부터 풍속까지 닮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도 교토에는 조선식 사원 건물이 남아 있어.”

“히라노(平野神社) 진자는 칸무텐노(桓武天皇)님의 어머니가 태어나신 나라인 백제에서 가져 온 세 주(株)의 신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나라조 시대에는 한층 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밀접해서, 형제 이웃 같아서말야. 민족적 대립 따위의 감정은 없었던 말야.”

“음, 쇼토쿠 타이시(聖德太子)님의 법화경 스승이 고구려 스님이 아닌가.”

“그래 혜자(慧慈)라는 사람이지. 백제의 자충(慈聰)이라는 스님도 그렇지.”

아무리 봐도 덧없는 세상에서 벗어난 이 두 노인은 정자에 앉아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촉촉히 내리는 비 속에 남아 있는 옛절과 옛날 그대로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일본과 조선은 옛날부터 이미 하나라는 기분으로 말하고 있었다. 나도 그 기분 속으로 녹아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이런 감정을 가진다면 두 민족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⁴³⁾

위의 기록은 조선에 유람 온 만년의 아베와 도쿠토미가 비 내리는 경

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안겨주고 타국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필연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이성시, 박경희 역, 『만들어진 고대』, 삼인, 2002. 216-221쪽 참조.

43) 이광수, 김윤식 역, 『無佛翁의 追憶』, 『韓國文學』, 1987.6, 335쪽.

주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이광수가 기록한 내용이다. 동우회 사건이 계류 중이었던 시기, 즉 친일 문학전선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기 직전 시기의 이광수와, 아베, 도쿠토미의 관계 일부가 드러나 있기도 하다. 제국주의적 정치 역학 속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선동조론’, 그리고 고대 ‘조선’에의 정서적 애착이 복합되어 있는 두 사람 간의 대화의 내용을, 착잡한 기분으로 듣고 있는 이광수의 심경이 서정적인 풍경 묘사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시기로부터 20년 전이었던 1916년 당시, 조선 고적에 대한 애정을 표백한 아베의 마음 속에는 어떤 속마음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이 이상의 판단 작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유감일 뿐이다. 추가 자료의 발굴 내지 연구를 더 기대하고 싶다.

IV. 결론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가 1916년 경성일보 및 매일신보에 발표한 조선 기행문<湖南遊歷>및 <無佛開城雜話>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이 두 편의 기행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개발 및 효율적 경영책의 핵심 사안으로서 개통된 호남선의 이데올로기가 그 이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호남선 연선 지역에 대한 경제·산업지리에 대한 아베의 집요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었음과 그 속에 그가 일찍 경험한 ‘근대’의 눈으로 식민지를 ‘경영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관철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의 대(對)조선관의 면에서는, 그가 일본인 대지주 및 정착민들의 선전(善戰)에 집중적인 관심을 분배하는 반면, 지주-소작 모순과 같은 식민지적 모순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목가적’이라 할 수 있는 시선으로 조선인과 풍경을 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세사의

조선 영웅들에 경의를 표하는 대목에서도 근세 일본과의 갈등 문제는 소거하고, 멸망한 왕조의 흔적 등 ‘홍망성쇠의 허망감’을 강조하는 유형의 정서를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가 조선인 전체를 보는 눈은 크게 보아 이순신이나 이성계, 정몽주, 이목은 등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과거 조선’과, 문명화되지 못한 ‘연민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현대 조선’이라는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형 보존주의’, ‘현지 보존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난, 그의 조선 유적에 대한 애착 속에서는 주관적인 의미에서의 조선 애호의 세계와, 심층적 의미에서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 추측되는 아베의 당시 조선과의 인연은, 경성일보 퇴임 이후의 시기, 즉 일본에 거주하며 사이토 마코토의 참모역을 하던 때에 비해 갈등이 현저하게 적은 ‘목가적 시기’의 소산물이었던 느낌이 있다. 식민지 당국측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깊은 부분에서는 극히 현실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조선인 소작농 등 서민들과 관련된 부분은 목가적, 서정적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 그 근거다. 이것은 조선을 일본의 일방적인 계몽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보고 있었던 그의 식민지관, 그리고 조선에 대한 학습량이 절대 부족 상태였던 그의 시기적 상황, 계급적 시각을 소유할 수 없었던 명치 대정기 지식인으로서의 사상적 한계, 그리고 테라우치의 철권통치 하에 있었던 당 시기의 상대적인 ‘안정감’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당시 그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국내 자료의 추가 발굴은 한계 상태에 와 있지 않나 판단되기도 하나, 아베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토 등의 보조적 연구를 통해 이 시기 아베의 면모 규명에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싶다.

참고문헌

- 『京城日報』, 1915년, 1916년분.
『每日申報』, 1915년, 1916년분.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김윤식, 『이광수 연구2』, 한길사, 1986. 6~9장.
——, 「무불옹의 추억」, 『한국문학』, 1987.6. 328-342쪽
김재호, 「식민지기의 재정지출과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경제사학』46호, 2009, 85쪽.
박양신,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 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37집, 2005.2, 83쪽.
소순열, 「1920-30년대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15권 2호, 6쪽.
심원섭,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경성일보 시대 행적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39집, 2009.10
정일성, 『일본 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2005.8.
정진석, 「언론사 탐구 - 일제 언론침략의 총본산 제2의 조선총독부 京城日報 연구」, 『관훈저널』, 2002년 여름.
전성현,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운동(1910-1923)」, 『石堂論叢』40집, 2008. 223쪽.
조성운, 「‘매일신보’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수유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33쪽.
『京城日報社誌』, 京城日報社, 1920.9
『徳富蘇峰民友社 關係資料集』, 三一書房, 1968.
中村健太郎, 『朝鮮生活 50年』, 靑朝社, 1969.7.
柴崎力榮, 「徳富蘇峰と京城日報」, 『日本歴史』1983.10

酒田正敏 외, 『徳富蘇峰關係文書』近代日本史料叢書, 7-2, 山川出版社,
1985

森山茂徳, 「現地新聞と總督政治, 『京城日報』について」, 『近代日本と植民
地 7卷 文化の中の植民地』岩波書店, 1993.

山室信一,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西洋の學知と‘近代」, 인하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3회 콜로키움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과 서학” 강연
원고, 2009.2.13

<日文 抄録>

阿部充家の朝鮮紀行文<湖南遊歷>, <無佛開城雜話>

A Study on Abe-Mituie's journal of traveling Chosen

Shim, Won-Sup

1916年、阿部充家が「京城日報」及び「毎日申報」に発表した朝鮮紀行文である<湖南遊歷>と<無佛開城雜話>の内容を検討してみた。この紀行文では、日本の植民地開発及び経営の核心事業として開通された「湖南線」イデオロギーがその裏面に深く介入されていること、湖南線の沿線地域の経済・産業地理について阿部が執拗な関心を表していたこと、彼が経験した「近代」の視線で朝鮮を「経営対象」として見る観点が貫ぬか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

阿部の對朝鮮觀の面では、彼が日本人大地主や定着民に集中的な関心を配る一方、地主-小作矛盾のような植民地矛盾に就いては関心が無かったこと、「牧歌的」ともいえる視線で当時の朝鮮を観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中世史の朝鮮人英雄に敬意を表する際も、近世日本との葛藤の局面は除去し、滅びた王朝の跡など、「興亡盛衰の虚妄感」を強調する特徴が現れていることも確認した。彼が朝鮮人全体をみる目は、「敬意の的としての過去」と、文明化されていない「憐憫もしくは教化の的としての現代朝鮮」というイメージが交差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原型保存主義」、「現地保存主義」という形態で現れた、彼の朝鮮遺蹟に対する愛着の中からは、彼の主観的な意味での朝鮮愛好の世界と、深層的な意味での帝國主義的な視覚が混在している可能性を考えてみることができた。

以上を通して推測される、阿部と当時朝鮮との縁は、京城日報退任以降の時期、すなわち、齋藤實の參謀役を努めていた時に比べるなら、「牧歌的な時期」の所産であったともいえよう。植民地当局の社會經濟的な利害關係と關連深い所では、非常に現實的な發言を續けながらも、朝鮮人小作農などと關わっている部分では、牧歌的、抒情的な視線で觀ていたことがその根據である。これは朝鮮を日本の一方的な啓蒙と施惠の對象として觀ていた彼の植民地觀、朝鮮に對する學習量が顯著に不足していた彼の時期的な狀況、階級的觀點を所有できなかった明治・大正知識人としての思想的限界、寺内の鐵拳統治下に置かれていた当時期の相對的な「安定感」と關わ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当時の彼の活動ぶりを確認できる國內資料の追加發掘は、限界状態になっているようであるが、阿部と周辺人物との關係に就いての研究などを通してでも、この時期における阿部の面貌の解明により具体的に近づいていきたい。

■ 논문접수 : 2009년 11월 10일

■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